

# iGods

## 아이갓

권오병 (경희대 교수)

그리스도인은 기술을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할까? 이 문제는 과학철학의 전통적인 논제로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은 그 확산 속도와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어떻게 성경적으로 평가할 것인가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관심사이다. 이런 종류의 책을 접할 때, 우리는 정보통신의 긍정성과 부정성 중 어느 쪽을 부각시키는 책임이 궁금해한다. 그런 면에서 <아이갓>(iGod)이라는 제목은 비판적인 시각일 것이라는 선입견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막상 책을 펼치면, 정보통신기술을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으로 보는 저자의 독특한 시각이 흥미롭다.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나 교회 수호 관점에서의 경계심 외에 정보통신 기술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려는 제3의 노력이 있다. 그리고 이 노력이 포스트모더니즘과 후기 정보사회 속 우리의 신앙과 신학을 동시에 풍성케 할 수 있음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먼저 하나님과 기술의 관계성을 정립하기 원한다. 하나님은 기술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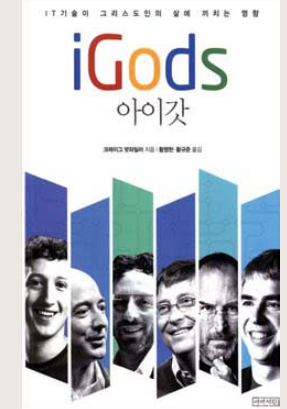
까. 그는, '하나님은 장인이시며 기술자로 비유할 수 있다고 정리한다. 하나님께서는 다스림의 풍성함을 위해 기술자로서 창조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직전까지 목수의 아들이셨음에 주목한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다스리는 문화 사역을 위해 얼마든지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일례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은 성경 보급과 수많은 교회의 출현에 기여했다.

다음으로는 기술 자체보다 기술에 대한 우리의 관념이 더 중요함을 상기시킨다. 관념에 따라 기술은 예술, 과학, 유혹, 독재자, 우상이 될 수도 있다. 견고한 신앙이 없으면 기술은 언제든지 독재자요 우상이 될 수 있다. 기술 자체에 그런 속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한 관념으로 스스로를 옥죄는 우리의 무지, 죄성 때문이다. 그리하여 기술로 만들어질 또 하나의 바벨탑, 즉 무신론적 이상 사회 실현에 가담하는 수많은 일꾼 중 하나로 전락하게 된다. 그렇다면 정보통신기술을 우상, 즉 아이갓으로 보는 그 일꾼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저자는 기술

자체는 존중하면서도 그것에 눈이 멀거나 매여 살지 않게, 즉 우상화하지 않도록 그들의 관념을 바꾸어 줄 선교적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음을 강조한다.

본서의 매력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친숙한 정보통신 서비스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등으로부터 신앙적인 혹은 신학적인 고민거리를 이끌어냈다는 점이다. 실리콘 벨리의 아이갓들을 지적함으로써 관심을 집중시킨 것이다. 정보통신 사회의 젊은이들은 대개 관심 밖의 담론을 부담스러워 한다. 사도 바울과 아테네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신, 아테미 여신과 관련하여 일어난 폭동,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오인되어 스스로 우상이 될 뻔했던 아찔한 순간들... 오늘날의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소재들에 그다지 감동이 없다. 그러한 우상들이 생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등의 아이갓들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우리는 이러한 아이갓들의 위력을 체험하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러한 우상들을 향해 저자는 용감하게 손을 들었다. 아이갓들과 그들의 제품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지켜보며 기술의 우주적 효용을 믿는 이른바 기술 신비주의자와 그 위력을 맛보고 있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자의 시도가 무모하게 보일만큼 이 책은 의미 있고 재미있다.

저자 크레이그 멧와일러  
| 역자 황영현, 황규준 | 아바서원



본서의 또 다른 매력은 마치 전공서를 방불케 할 정도로 오늘날의 정보통신기술들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당수의 글들은 일반 정보통신 혹은 정보경영학 강의 시간에 인용하여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디테일하다. 기술을 상식 수준이나 어찌 너머로 파악한 후 기술에 대한 자신의 관점에 상상력을 더하여 막연히 써내려간 책과는 크게 차별된다. 따라서 신홍종 교가 될 수 있다는 아이갓들에 대한 경고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비기독교인들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다.

저자는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설명하기 위해 제2장부터 8장까지 가장 유명한 정보서비스 회사의 최근 사례를 총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제2장 “애플: 먼저 외양이 아름다워야 한다”에서는 애플이 만든 심미적 결과물들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창성의 산물로 평가한다.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명령어 기반의 IBM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미학적으로 압도한다. 유려한 폰트 창작에 대한 열정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나 저자는 이 또한 지나치면 바벨탑을 쌓은 니므롯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애플의 창작품을 ‘송배하는

수많은 사용자들에게도 전원을 끄는 힘을 기를 것을 가르친다. 그리고 애플의 미학과 아름다움에 이끌리는 것처럼 교회도 사람들이 머물고 싶은 곳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사실 교회에도 예배 중 소리와 찬양, 성스러운 문양 등 온갖 아름다움이 있으니 말이다.

저자는 제3장에서 인터넷의 발자취를 요약해 주는 기지를 발휘한 다음, 제4장 “아마존: 풍요로운 온라인 쇼핑시대를 열다”로 독자들을 안내한다. 저자는 신속하게 출몰되어 킨들 스토어에 진열되어 있는 온라인 서적들을 보며 생육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연상한다. 또한 추천 메커니즘이나 원클릭 결제, 방대한 콘텐츠 등 개인화된 쇼핑 방법이 아마존을 선호하게 함을 목도하면서, 문득 개인화된 쇼핑 정신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을 떠올린다. 대표적으로 교회의 시설과 서비스뿐 아니라 목사님의 설교와 제자훈련 프로그램마저 교회 선택의 요소로 인식해 버리는 교회 쇼핑객들의 출현을 들 수 있다. 아마존의 정신, 어쩌면 아마존을 만들게 한 시대정신이 교회의 거룩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직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번영복

음보다는 이미 받은 것들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주신 풍요의 복음을 제안한다.

제5장은 “구글: 검색 알고리즘으로 세계를 지배하다”이다. 구글은 ‘세계의 모든 정보를 정리한다’는 비전으로 지메일과 각종 검색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 대가로 우리들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확보해 가는 중이다. 특히 최근에는 방대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간명한 정보를 정리해내는 이른바 빅데이터의 선두주자가 되어, 마치 혼돈 속에서 질서 잡힌 천체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다. 여기서 저자는 그러한 공헌을 인정하면서도 웹을 소유하려는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오히려 구글 자신을 우상으로 변질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즉, 구글이 각종 뉴스를 모으고 자료를 정리한 것은 칭찬받을 만하나 정보 권력이 구글 쪽으로 치우치게 만드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상당수가 개인정보이므로, 구글 내부에서 이 개인정보로 어떤 프로젝트를 벌일지 알 수 없다는 점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제6장에서는 친절하게 소셜네트워킹의 개념 및 역사 소개 그리고 소셜네트워킹 서비스에 대한 몇 가지 논제를 던진 후, 제7장 “페이스북: 진정한 친구인가, 진짜 원수인가?”로 넘어간다. 페이스북에도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존재하다. 여느 기술과 마찬가지로 페이스북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페이스북을 대하는 관점과 통제권, 사용의도의 문제이다. 즉, 페이스북은 필요하면서도 성가신 친구, 또는 심지어 혐오스러운 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은 개인주의 시대에 공동체성을 회복시키고 바

쁜 시대에 효율적으로 인관관계를 형성해주는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하지만 자신을 과시하려는 나르시스트적 욕구 충족을 위해 사용되거나 관음증을 가진 사람에게 악용될 수도 있다. 또한 의도와는 상관없이 무분별한 자기 과시는 다른 사람의 시기와 질투를 유발하여 사회를 서서히 어둡게 만들 수도 있다. 어떻게 페이스북을 선용할 것인가는 교회의 과제이다. 제8장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 청중에서 참여자로”에서는 먼저 교회의 정체성 중 하나가 확산적 네트워크이며 청중들을 모으고 참여를 격려하는 곳임을 상기시킨다. 이어서 참여자로 승격된 군중이 때로 예수님을 공격한 집단으로 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소셜네트워크도 교회에게 축복이 될 수도, 저주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소셜네트워크에 지나치게 몰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위험성을 언급하면서 유행을 따르고 유명해지려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저자는 현재의 정보통신기술들이 신앙생활을 포함한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그 기술들이 주는 모든 약속들을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말로 정리한다. 그런 믿음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우리 마음에 우상, 즉 아이갯을 새기는 일이다.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력으로 그 기술이 개발되었고, 그 의도와 목적이 생육과 번성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일부 부합하더라도 말이다.



**권오병** 서울대 경영대학에서 경영학사(BA) 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과학과에서 공학석사(MS) 및 박사(Ph.D.)를 취득하고 현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중이다. 경영정보시스템과 소셜미디어, 그리고 데이터분석 분야에 100여 편의 국내외 학술논문을 발표하였다.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과 한동대학교에서도 교수로 재직한 바 있는 그는 현재 경기도 성남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동문교회에서 장로로 섬기고 있다.